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의 관련성

가경환¹, 문선정², 구인영^{2*}
¹경운대학교 경호학부, ²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of Marriage Migrant Women's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Oral Health Awareness

Kyung-Hwan Ka¹, Seon-Jeong Moon², In-Young Ku^{2*}

¹Department of Protection Science, Ky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구강건강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 경북, 경남지역 8곳의 다문화 관련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법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 25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과 AMOS 7.0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치석제거(스케일링)경험은 구강건강신념요인 중 심각성($\beta = .568$)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5$),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건강신념요인 중 감수성($\beta = -.39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건강신념요인 중 감수성($\beta = .183$), 심각성($\beta = .172$), 유용성($\beta = .224$)과 자기효능감($\beta = .237$)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p < .01$). 결혼이주 여성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에 미치는 요인의 분석으로 향후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과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f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oral health awareness for marriage migrant women's in the Yeongnam region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help develop programs necessary to improve oral health awareness and change attitudes; for this purpose,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ased on interview was used in marriage migrant women's using eight multicultural centers in Daegu and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from October 1 to December 15, 2013 and 256 copies were finally analyzed. The statisticall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and AMOS 7.0,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set at $p < .05$. As for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oral health awareness, the experience of scaling was affected by seriousness($\beta = .568$) among the factors of oral health belief($p < .05$), oral health status was affected by sensitivity($\beta = -.391$)($p < .01$), and oral health concern was affected by sensitivity($\beta = .183$), seriousness($\beta = .172$), usefulness ($\beta = .224$), and self-efficacy($\beta = .237$)($p < .01$).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oral health awareness, make positive efforts to develop preventive oral health management and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make fundamental policies for improving or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marriage migrant women's can make efficient oral health management.

Keywords : Oral Health Belief, Self-Efficacy, Oral Health Awareness

*Corresponding Author : Cheol Huh(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Tel: +82-51-410-5247 email: cheolhuh@kmou.ac.kr

Received September 1, 2015

Revised (1st September 25, 2015, 2nd October 1,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양적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겹쳐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인 1,569,490명 중에서 결혼 이민자는 149,764명, 혼인귀화자는 90,439명으로 그 중 여성이 213,989명 이었다[1]. 이로 인한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생 아동은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2020년에는 30만 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녀의 건강관리 습관 및 보건지식 형성의 책임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자녀의 건강관리 습관을 지도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녀의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형성 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3].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의료복지서비스가 취약하고,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 취약 등에서 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공급 서비스미비와 의료비 부담에 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취약하여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건강이 자녀의 건강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과도 연계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5]. 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관련연구로 전신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 정신건강상태 등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지만[6-8], 전신건강과 관련하여 구강건강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는 전신건강 관련 연구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구강건강을 관리함에 있어 건강관련행위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준비상태와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강신념 모형은 질병 예방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행위 양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지식은 주어진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고 하였다[9-11]. 따라서 구강건강신념을 통해 개인의 구강관련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인간의 태도와 신념은 행동의 전제조건이 되기에 이를 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

은 구강건강행위에 중요한 요소이다[12]. Broadbent 등의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강건강신념은 반드시 고정되어있지 않고 높은 구강건강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구강건강을 가지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에 구강건강신념은 구강건강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다[13]고 강조하고 있다.

건강신념과 더불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이며 개인이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써 직접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동기화 시키며 행동의 시행이나 유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15].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건강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이므로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질병예방과 자기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16,17]. 구강건강도 전신건강의 일부이므로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증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5]. 류 등[17]은 자녀들의 구강건강에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건강과 밀접한 구강건강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파악, 정기적인 검진,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치과이용경험, 구강위생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관에서 의료비용, 의료복지 지원 및 정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관리 행위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예측하여 그 결과에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 시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도 요구된다[18].

이에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구강건강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 경북, 경남지역 8곳의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내용의 용도를 충분히 설명 후 응답에 동의한 여성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면접조사방법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28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매우 불성실한 26부를 제외하고 총 25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과 이주와 관련된 특성 6문항, 구강건강인식도 및 예방적 구강건강행태(스켈링경험 여부) 4문항을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신념의 하위영역은 선행연구[19,20]를 바탕으로 감수성 6문항, 심각성 7문항, 장애도 5문항, 유익성 6문항, 중요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Cronbach's alpha=.854).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21,22]를 참고하여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의 하위차원 변수를 이용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Cronbach's alpha=.837)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구강건강인식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구강건강행태(스켈링 경험여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신념의 하위요소인 감수성, 심각성, 장애도, 유익성, 중요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신념, 자기효능감의 차이,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One-way ANOVA, s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

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의 관련성 검증을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적합도 검증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5세~34세가 143명(55.9%), 학력은 고등학교 124명(48.4%), 자녀의 수는 1명이 95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127명(49.6%), 중국 99명(38.7%)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86명 (33.6%), 6년 이상이 67명(26.2%), 2~4년이 58명(22.7%)이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이 109명(42.6%), 약간 서툰 편이 75명(29.3%)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Division	N	%
Age (yrs)	< 25	49	19.1
	25~34	143	55.9
	35~44	53	20.7
	45≤	11	4.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4	9.4
	Middle School	44	17.2
	High School	124	48.4
	College or Higher	64	25.0
Number of children	0	86	33.6
	1	95	37.1
	2	65	25.4
	3≤	10	3.9
Native country	China	99	38.7
	Vietnam	127	49.6
	Philippines	12	4.7
	Others*	18	7.0
Duration of residence (yrs)	< 2	86	33.6
	2~4	58	22.7
	4~6	45	17.6
	6≤	67	26.2
Korean proficiency	Very low	40	15.6
	Slightly low	75	29.3
	Aaverage	109	42.6
	Slightly high	28	10.9
	Very high	4	1.6

etc*:Kyrgyzstan, Japan, Cambodia, Uzbekistan, Peru, India, Russia, by frequency analysis

3.2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인식도 문항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은 보통이

151명(59.0%)으로 가장 높았고, 조금 나쁘다가 58명(22.7%)이다. 자가 구강건강상태는 이상 없음이 84명(32.8%), 잇몸출혈이 79명(30.9%), 충치 57명(22.3%). 구취 45명(17.6%)순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건강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가 113명(4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88명(34.4%)로 조사되었다. Table 2.

Table 2. Oral health awareness

Division		N	%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10	3.9
	Lightly healthy	28	10.9
	Average	151	59.0
	Slightly unhealthy	58	22.7
	Very unhealthy	9	3.5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multiple choices)	No problem	84	32.8
	Dental caries	57	22.3
	Gingival bleeding	79	30.9
	Chewing difficulty	38	14.8
	Halitosis	45	17.6
Oral health concern	Others*	21	8.2
	Very concerned	49	19.1
	Concerned	113	44.1
	Average	88	34.4
	Unconcerned	4	1.6
	Absolutely unconcerned	2	0.8

Others*: wisdom tooth, tooth mobility, toothache, ulcer, discolored tooth, hyperesthesia, by frequency analysi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구강건강행태

연령에 따른 예방적 구강건강행태에서 정기적인 스케링이 25세 미만에서는 ‘경험없음’이 38명(28.8%), 25세~34세에서 ‘정기적’이 40명(60.6%)로 나타났고, 자녀는 2명인 경우 ‘정기적’이 30명(45.5%)로 나타났으며,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경험없음’ 80명(60.2%)으로 높았고, 중국출신이 ‘정기적’이 34명(51.5%)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6년 이상에서 45명(68.2%)이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2~4년에서 ‘경험없음’이 56명(42.1%)으로 많았고,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는 약간 잘함인 ‘정기적’인 경우가 16명(2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Table 3.

Table 3. Experience of scaling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ence of scaling		
	no experience	irregular	regular
Age (yrs)			
< 25	38(28.8)	7(12.3)	4(6.1)
25~34	71(53.4)	32(56.1)	40(60.6)
35~44	20(15.0)	17(29.8)	16(24.2)
45≤	4(3.0)	1(1.8)	6(9.1)
p	.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13.5)	1(1.8)	5(7.6)
	Middle School	23(17.3)	14(24.6)	7(10.6)
	High School	61(45.9)	28(49.1)	35(53.0)
	College or Higher	31(23.3)	14(24.6)	19(28.8)
p	.098			
Number of children	0	61(45.9)	12(21.1)	13(19.7)
	1	48(36.1)	27(47.4)	20(30.3)
	2	20(15.0)	15(26.3)	30(45.5)
	3≤	4(3.0)	3(5.3)	3(4.5)
p	.001***			
Native country	China	34(25.6)	31(54.4)	34(51.5)
	Vietnam	80(60.2)	21(36.8)	26(39.4)
	Philippines	9(6.8)	1(1.8)	2(3.0)
	Others*	10(7.5)	4(7.0)	4(6.1)
p	.002**			
Duration of residence (yrs)	< 2	0(0.0)	1(1.8)	5(7.6)
	2~4	56(42.1)	18(31.6)	12(18.2)
	4~6	14(10.5)	4(7.0)	4(6.1)
	6≤	63(47.4)	34(59.6)	45(68.2)
p	.001***			
Korean proficiency	Very low	26(19.5)	5(8.8)	9(13.6)
	Slightly low	44(33.1)	20(35.1)	11(16.7)
	Everage	57(42.9)	24(42.1)	28(42.4)
	Slightlyhigh	5(3.8)	7(12.3)	16(24.2)
	Very high	1(0.8)	1(1.8)	2(3.0)
p	.001***			

*** p<.001, ** p<.01, *p<.05 by chi-square test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과 자기 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차이에서 학력은 ‘고등학교’에서 3.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05), 자녀수는 ‘1명’이 3.08점, ‘2명’ 3.03점으로 나타났고(p<.01).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3.13점, ‘중국’ 2.84점, ‘필리핀’ 2.67점 순으로 나타났고(p<.001).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연령에서 ‘45세 이상’이 4.00점으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 44이하’ 3.74점, ‘25세 이상 34세 이하’ 3.57점, ‘25세 미만’ 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이 ‘25세 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Table 4.

Table 4.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Belief	Self-Efficacy
	Mean ± SD	Mean ± SD
Age (yrs)		
< 25	2.92 ± .493	3.53 ^a ± .581
25~34	3.00 ± .557	3.57 ± .634
35~44	2.98 ± .460	3.74 ± .625
45≤	3.00 ± .000	4.00 ^b ± .632
F(p)	.312(.81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88 ± .448	3.42 ± .654
	Middle School	2.98 ± .590	3.52 ± .664
	High School	3.07 ± .463	3.64 ± .603
	College or Higher	2.84 ± .541	3.70 ± .634
F(p)		3.282(.022 [*])	1.594(.191)
Number of children	0	2.85 ± .543	3.60 ± .580
	1	3.08 ± .519	3.61 ± .657
	2	3.03 ± .432	3.60 ± .680
	3 ≤	2.80 ± .422	3.80 ± .422
F(p)		3.947(.009 ^{**})	.307(.820)
Native country	China	2.84 ± .467	3.54 ± .644
	Vietnam	3.13 ^b ± .510	3.65 ± .637
	Philippines	2.67 ^a ± .492	3.92 ± .515
	Others*	2.89 ± .471	3.61 ± .502
F(p)		8.762(.001 ^{***})	1.562(.199)
Duration of residence (yrs)	< 2	3.00 ± .000	3.67 ± .516
	2~4	2.88 ± .471	3.58 ± .563
	4~6	2.86 ± .468	3.59 ± .503
	6 ≤	3.06 ± .543	3.63 ± .689
F(p)		2.488(.061)	.147(.932)
Korean proficiency	Very low	2.98 ± .480	3.75 ± .588
	Slightly low	2.95 ± .462	3.57 ± .574
	Average	3.04 ± .560	3.59 ± .656
	Slightly high	2.89 ± .497	3.54 ^a ± .637
	Very high	2.75 ± .500	4.25 ^b ± .957
F(p)		.816(.516)	1.750(.140)

*** p<.001, ** p<.01, * p<.05 by One-way ANOVA, sheffe a<b

3.5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신념과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구강건강신념을 높게 느낄수록 하위요인의 감수성, 심각성, 장애도, 유익성, 중요성과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5.

3.6 구강건강신념, 자기효능감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건강신념 하위 영역의 감수성에

서 ‘그렇다’가 3.62점, 심각성은 ‘조금나쁨’이 3.59점, 유익성은 ‘아주나쁨’이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건강신념요인인 유익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차이는 ‘보통’이 2.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1). 중요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차이는 ‘보통’이 2.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5), 자기효능감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차이는 ‘관심없음’이 2.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Table 6.

3.7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스케일링 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수성(β=2.787)과 심각성(β=.568)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수성(β=-.391)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관심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수성(β=-.183), 심각성(β=.172), 유익성은 (β=.224), 자기효능감(β=.237)으로 나타나 심각성과 유익성 높을수록 구강건강관심도는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관심도는 올라감을 의미한다 Table 7.

3.8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인과관계

결혼이주 여성들의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316.06$ [df=14, p=.000], GFI=.949, CFI=.958, TLI=.972, RMSEA=.065, RMR=.034 등으로 비교적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8.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ral Health Belief	Sensitivity	Seriousness	Disability	Usefulness	Importance	Self-Efficacy
Oral Health Belief	1						
Sensitivity	.720	1					
Seriousness	.776	.640 ^{**}	1				
Disability	.512	.170 ^{**}	.239 ^{**}	1			
Usefulness	.634	.246 ^{**}	.223 ^{**}	.148 [*]	1		
Importance	.535	.115	.156 [*]	.177 ^{**}	.502 ^{**}	1	
Self-Efficacy	.074	-.010	.046	-.118	.161 ^{**}	.178 ^{**}	1

** p<.01, * p<.05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Oral health awareness by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Division		Sensitivity	Seriousness	Disability	Usefulness	Importance	Self-Efficacy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1.80 ^a ± .837	2.35 ± .786	2.86 ± .345	2.00 ± .000	3.50 ± .707	2.88 ± .835
	Lightly healthy	2.72 ^b ± .758	2.93 ± .786	3.00 ± .823	2.38 ± .870	2.87 ± .187	3.17 ± .781
	Average	3.25 ± .654	3.22 ± .706	3.16 ± .735	3.13 ± .879	3.11 ± .721	3.13 ± .773
	Slightly unhealthy	3.62 ^c ± .684	3.59 ± .628	3.15 ± .816	3.15 ± .612	3.12 ± .794	2.58 ± .900
	Very unhealthy	2.52 ± .713	3.52 ± .724	3.00 ± .816	3.37 ± .895	3.33 ± .033	2.01 ± .625
	F(p)	24.372(.000 ^{***})	11.240(.000 ^{***})	.649(.628)	5.482(.000 ^{***})	.599(.663)	2.246(.083)
Oral health concern	Very concerned	1.80 ± .837	2.47 ± .800	2.43 ± 1.134	2.00 ± .000	2.00 ± .000	2.13 ± .835
	Concerned	2.22 ± .799	2.18 ± .797	2.00 ± .769	2.48 ± .650	2.34 ± .816	2.54 ± .727
	Average	2.23 ± .797	2.25 ± .808	2.21 ± .747	2.38 ± .715	2.33 ± .763	2.01 ± .774
	Unconcerned	2.18 ± .777	2.00 ± .655	2.39 ± .881	2.02 ± .818	2.07 ± .805	1.92 ± .669
	A b s o l u t e l y unconcerned	1.65 ± .627	1.00 ± .728	2.00 ± .816	1.84 ± .688	1.50 ± .548	1.24 ± .568
	F(p)	.488(.691)	1.705(.149)	1.426(.226)	6.162(.000 ^{***})	3.119(.016 [°])	9.750(.000 ^{***})

^{***} p<.001, [°]p<.05 by One-way ANOVA, sheffe a<b

Table 7.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oral health

		B	S.E	β	t	p
Experience of scaling	(Constant)	-.657	1.245	.519	.278	.598
	Sensitivity	1.025	.276	2.787	13.824	.000 ^{***}
	Seriousness	-.566	.241	.568	5.513	.019 [*]
	Disability	.121	.193	1.129	.395	.530
	Usefulness	-.328	.235	.720	1.949	.163
	Importance	.187	.227	1.205	.677	.411
	Self-Efficacy	-.164	.246	.848	.448	.503
	R ² = .088, log likelihood= 336.957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Constant)	4.233	.412		10.270	.000
	Sensitivity	-.463	.085	-.391	-5.457	.000 ^{***}
	Seriousness	-.141	.076	-.134	-1.850	.066
	Disability	.048	.064	.043	.749	.455
	Usefulness	-.117	.077	-.099	-1.518	.130
	Importance	.034	.074	.029	.453	.651
	Self-Efficacy	.119	.081	.082	1.463	.145
	R ² = 0.264, F= 14.912, p=.000 ^{***}					
Oral health concern	(Constant)	1.915	.442		4.331	.000
	Sensitivity	-.217	.091	-.183	-2.384	.018 [*]
	Seriousness	.182	.082	.172	2.225	.027 [*]
	Disability	-.094	.068	-.084	-1.377	.170
	Usefulness	.267	.083	.224	3.230	.001 ^{**}
	Importance	.026	.080	.022	.325	.746
	Self-Efficacy	.343	.087	.237	3.932	.000 ^{***}
	R ² = 0.159, F= 7.854, p=.000 ^{***}					

^{***} p<.001, ^{**} p<.01, ^{*} p<.0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8. Bonding of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GFI	CFI	TLI	RMSEA	RMR	χ^2	df	p
Based Model	.949	.958	.972	.065	.034	316.06	14	.000

결혼이주 여성들의 구강건강신념 및 자아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구강건강인식에 투입된 구강건강신념[$\beta=.414, p>.000$]과 자아효능감[$\beta=.345, p>.000$] 모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있었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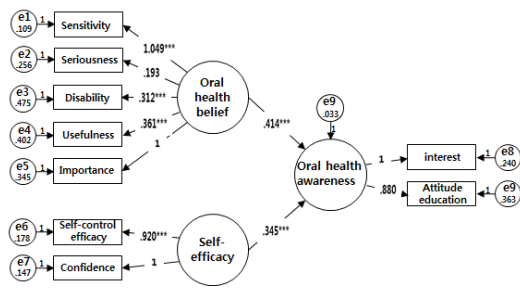


Fig. 1. Causality between Or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ral health awareness

4. 고찰

현대사회는 세계화된 개방정책과 국제결혼의 양적증가로 인해 국적이동이 활발한 추세로 국 제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결혼 이민자·귀화자 중 여성이 79.8%, 남성이 20.2%로 추정된다[23].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의사소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의 경험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를 보고하여[24] 결혼 이주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건강의 개념이 신체적 영역에서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과거에 비해 개인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25],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및 구강건강관리의 현황 분석과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기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강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연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특히 구강건강인식도가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신념과 행위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지식은 주어진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은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일 뿐 아니라 건강관련 행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의 효과를 나타낸다[15]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예방적 구강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의 구강건강 인식 개선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5세~34세’가 55.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 윤 등[6], 배 등[21], 양[26], 정 등[27]의 결혼이주 여성의 분포에서 25~29세 37.1%, 20~24세가 28.3%, 25~29세 28.3%, 21~30세가 57.1%로 30세 미만이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젊은 층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8.4%로 가장 높아 배 등[21], 양[26], 정 등[27]의 38.7%, 38.5%, 35.2%로 계 조사된 결과와 같았고,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28]의 44.6%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이 37.1%로 배 등[21]의 연구에서 1명이 64.5%로 가장 많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출신국가는 ‘베트남’ 49.6%, ‘중국’ 38.7%, ‘필리핀’ 4.7%로 윤 등[6], 최 등[18], 전 등[25], 정[27]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이 대다수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33.6%, ‘2년~4년’은 22.7%, ‘4년~6년’은 17.6%, ‘6년 이상’은 26.2%이다. 이 등[29]은 ‘5년 미만’이 57.1%, 양[26]은 거주기간이 평균 5년, 정 등[27]은 1~3년 38.8%, 3~5년 23.1%, 최[18]는 1~3년 43.1%, 4~6년 29.4%로 한국생활의 초기단계와 적응 단계에 있는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인식도 문항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은 ‘보통이다’가 59.0%로 가장 높았고, 구강건강 관심도는 ‘관심 많음’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구강건강상태는 ‘이상없음’이 32.8%, ‘충치’가 22.3%, ‘잇몸출혈’이 30.9%, ‘저작불편’이 14.8%, ‘구취’는 17.6%였다. 윤 등 [6]의 연구에서는 우식치아 60.%, 결손치아 50.2%, 치주 질환 79.6%의 결과와 같이 구강자각 증상 및 구강 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구강건강신념을 감수성, 심각성, 장애도, 유익성, 중요성으로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5점 척도화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은 3.01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평균에서는 감수성 2.7점, 심각성 2.65점, 장애도 2.92점, 유익성 3.48점, 중요성 3.42점으로 유익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중요성, 장애도, 감수성, 심각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등[30]의 연구에서 각 영역별 평균이 유익성 3.24점수로 가장 높았고, 심각성 2.25점으로 본 연

구보다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60점으로, 자기효능감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의 차이 분석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신념 차이는 ‘고등학교’가 3.07점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녀수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의 차이는 ‘1명’이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출신국가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차이는 ‘베트남’이 3.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31]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인식과 구강건강행위의 상관관계에서 구강보건인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행위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5점 만점에 3.73점으로 유익성 영역에서 나타났고, 장애성 영역은 학력 2.57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익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장애성 영역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분석결과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5세 이상에서 4.00점으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송 등[32]은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학력, 결혼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강건강신념, 자기효능감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신념요인인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10]은 구강건강 신념요인 중 중요성, 감수성 영역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강건강신념, 자기효능감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에서 구강건강상태와 비교에서는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하위영역 중 감수성 3.62점, 심각성 3.59점, 유익성 3.1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심도의 비교에서는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신념 중 유익성 2.48점, 중요성 2.34점, 자기효능감이 2.54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김 등[33]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구강건강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감수성, 심각성, 장애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구강건강신념,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케일링 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수성이 높을수록($\beta=2.787$), 심각성이 낮을수록($\beta=.568$) 스케일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수성($\beta=-.391$)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낮게 나타났다. 감수성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신념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강건강관리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구강건강관련행위를 보인다고 하였다[34]. 구강건강관심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심각성($\beta=.172$)과 유익성($\beta=.224$)이 높을수록 구강건강관심도는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관심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구강건강신념 및 자아효능감은 구강건강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강건강인식을 강화시켜주는 변수로 나타나, 이는 김과 유[22]의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고, 강과 박[35]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동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건행위가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아효능감과 구강건강신념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구강건강인식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언어장벽에 따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여 전체 대상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 관련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 외 이주여성 관련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25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법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AMOS 7.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스케일링 경험은 구강건강신념요인 중 감수성($\beta=2.787$), 심각성($\beta=.568$)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감수성($\beta=-.39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구강건강관심도는 감수성($\beta=-.183$), 심각성($\beta=.172$), 유익성($\beta=.224$)과 자기효능감($\beta=.237$)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결혼이주여성들의 구강건강신념과 자아효능감은 구강건강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인식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요인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 이주여성의 구강건강 인식 개선과 증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예방적 구강건강관리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과 구강건강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tatus of foreign residents 2014, (Jul 2, 2014), Available From:<http://www.mospa.go.kr>.
- [2] D. H. Seol, M. H. Suh, S. S Lee, M. A. Kim, A study of the medium to long term prospect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On the focus of the popul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nd the analysis of its socio-economic impacts on Korea society, (Nov 4, 2010),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
- [3] J. K. Kang, S. M. Lee, Relationship between ora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attempts to improve or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4, No. 3, pp. 354-361, 2010.
- [4] H. K. Yun, G. Y. Choi,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Behavior of I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3, pp. 268-275, 2012.
- [5] N. K. Lee, H. W. Oh, H. S. Lee, A comparative analysis of oral health behavior between multicultural and ordinary Korean families;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5, No. 4, pp. 450-456, 2011.
- [6] H. K. Yun, S. H. Lee, G.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o Oral Health Status in Populati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2, pp. 678-684,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2.678>
- [7] K. S. Lee1, M. Y. Jeon, M. S. Kang, K. S. Chae, J. H. Hwang, M. Y. Yoo, H. C. Jeong, Study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Korean language ability and health statu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9, pp. 5683-5692,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9.5683>
- [8] M. Y. Jeon, H. S. Kim, H. J. Kim, H. J. Le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homeland of the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immigrants living in Chungbu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8, pp. 3500-3512,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8.3500>
- [9] M. N. Kim, D. S. Lim, M. H. Kim, A. R. Kim, S. I. Kim, Y. S. Ahn, Effect of Health Belief Factor on Oral Health Related Behavior in Pregnant Wom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5, No 2, pp. 129-137, 2015.
DOI: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2.129>
- [10] M. S. Park,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1, No. 2, pp. 107-119, 2011.
- [11] M. G. Ji,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8, No. 4, pp. 165-180, 2008.
- [12] B. H. Jun, M. H. Choi, A Correlative Study of Children's Dental Health Beliefs and Dental Health Behaviour,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10, pp. 7-19. 2006.
- [13] J. M. Broadbent, W. M. Thomson, R. Poulton, Oral Health Beliefs in Adolescence and Oral Health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Dental Research Vol. 85, No. 4, pp. 339-343, 2006.
DOI: <http://dx.doi.org/10.1177/154405910608500411>
- [14] H. K. Jung, S. C.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technici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4, No. 4, pp. 553-561, 2010.
- [15] Y. H. Kang, Self-Efficacy,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n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3, No. 3, pp. 87-100, 2012.
- [16] E. Y. Hong, Factors Affecting Nurse's Health Promoting Behavior : Focusing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Lab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154-162, 2014.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3.154>

- [17] K. Ryu, S. H. Jeong, J. Y. Kim, Y. H. Choi, K. B Song,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28, No. 1, pp. 105-115, 2004.
- [18] M. S. Choi, H. G. Kim, G. Y. Choi,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management and attitude change after health education program designed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4, pp. 569-579, 2013.
DOI: <http://dx.doi.org/10.13065/iksdh.2013.13.4.569>
- [19] H. J. Lim, H. J. Kim, Y. S. Ahn, The impact of health belief model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or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1, pp. 111-118, 2015.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1.111>
- [20] S. J. Kwon, E. J. Lee,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n Use of Dental Service of Students of Health and Medical Department of Universiti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3, pp. 83-93, 2013.
- [21] K. E. Bae, K. H. Lee, Y. H. Kim, S. Kim, H. K. Kim, J. H. Kim,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6, No. 3, pp. 175-183, 2010.
- [22] Y. I. Kim, S. H. Yu, Influencing factors on oral health related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1, pp. 129-135, 2015.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1>.
- [2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unicipalities Foreign Residents Survey Results", Seoul, 2012.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24] W. S. Cho, J. H. Chun, M. S. Choi, J. H. Lee, H. M. Lee, J. H. Yi, H. S. Sohn, Y. H. Jo, Oral healthcare relate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Gyungsangnam-Do,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5, No. 4, pp. 432-440, 2011.
- [25] E. S. Jeon, S. Y. An, Y. H. Choi, Migrant Multi-Cultural Family Women's Life Quality Related to Oral Health: Survey in Dae-Gu,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1, No. 3, pp. 181-187, 2011.
- [26] S. J. Yang,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323-335, 2010.
- [27] G. H. Jeong, H. J. Koh, K. S. Kim, S. H. Kim, J. H. Kim, H. S. Park, Y. S. Lee, Y. R. Han, K. W. Kim,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261-269, 2009.
- [28] K. T. Jeon, H. S. Chung, Y. R. Kim, J. S. Joo, H. Y. Kim,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Apr 23 2013),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
- [29] J. H. Lee, S. J. Jin, H. J. Ju, Y. S. Cho,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4, No. 1, pp. 87-98, 2013.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1.87>
- [30] Y. S. Kim, Y. J. Yoon, E. J. Go, Relationship between Scaling Behaviors and Knowledge and Oral Health Belief of Workers in Certain Regio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0, No. 5, pp. 329-334, 2010.
- [31] E. S. Cho, The Effect of Middle Schoolers' Oral Health Awareness on Oral Health Condi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0, pp. 5020-502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0.5020>
- [32] M. K. Song, E. K. Lea, H. J. Shin,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Foreign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627-1643, 2009.
DOI: <http://dx.doi.org/10.15703/kjc.10.3.200909.1627>
- [33] S. D. Kim, H. G. Ryu, S. S. Chio, A Study on The Oral-Health Belief and Oral-Health Behavior of Some Twenties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Acad of dental hygiene, Vol. 12, No. 2, pp. 85-96, 2010.
- [34] M. H. So, H. J. Choi, Influencing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4, pp. 623-629, 2013.
DOI: <http://dx.doi.org/10.13065/iksdh.2013.13.4.623>
- [35] M. J. Kang, Y. S. Park,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J Korean Soc School Health, Vol. 5, pp. 43-70, 2004.

가 경 환(Kyung-Hwan Ka)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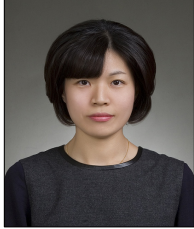


- 1999년 2월 :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론, 연구방법론

문 선 정(Seon-Jeong Moon)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예방치학, 치주학, 구강해부학

구 인 영(In-Young Ku)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